

로 된 정보를 통한 이해와 각성에서 나온 것이다.

그 결과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영국 국회의사당에서 친한 인사들이 모여 한국친우회라는 한국 독립 지원 해외단체를 결성한 것이다. 이처럼 영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일·친한단체가 출현하자 한국위원단(Korea Commission)의 대표인 황기환(box 기사 참조)은 유럽 독립운동의 중심지를 일시적으로 파리에서 런던으로 옮기게 된다. 매켄지는 황기환을 유럽에서 한국인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다.

매켄지의 활발한 활동과 더불어 한국친우회 회장인 로버트 뉴먼 바트 경은 1920년 간도대학살에 대해 영국 정부가 알고 있으며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세실 햄스워드 Cecil Harmsworth 외무차관에게 공식적으로 따져 묻기까지 했으며 회원들은 설립 초기 한국에 대한 일본의 공포정치를 폭로하는 인쇄물들을 다수 만들어 배포했다.

그러나 그 후 자금 문제 등으로 활동이 어려워져 1925년경에는 매켄지와 서기로 활동하던 윌리엄스 만이 남았다. 결국 영국에서 한국친우회의 활동이 저조하면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도

퇴조했고 한국의 독립운동과 한국인의 독립정신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힘을 보태던 매켄지도 1931년 캐나다에서 사망했다. 그가 몸담았던 신문에 실린 그의 부고 소식은 <뛰어난 종군기자이며 훌륭한 작가 사망>이라고 했다.

한국친우회가 결성된 지 94년, 매켄지가 사망한 지 83년. 2014년 7월 8일 주영국 대한민국대사관에



▲ 한국의 독립에 기여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프레데릭 맥켄지 씨의 손녀 니콜슨 맥킨지 여사(사진 우측)에게 2014년 7월 8일 런던의 주영국대사관에서 훈장을 전수했다. (좌측은 임성남 전 영국대사)

맥 켄 지 의 손 녀 니 콜 스 매 켄 지 Nicholson MacKenzie 여사와 그 가족들이 초청됐다. 한국의 독립에 기여한 공로로 건국훈장 독립장에 추서된 매 켄지의 훈장 전수식이 열렸다. 그녀는 그해 광복절을 앞두고 한국에도 초청돼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것이 행복하다.”고 했다.

한국친우회가 결성된 국회 6호실은 과연 어디일까.

영국 국회의사당은 일반인의 관람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극히 한정된 구역만 볼 수 있다. 현재의 웨스트민스터 도면에서 보이는 LOWER WAITING HALL - CENTRAL LOBBY를 통해 우측에 있는 MEMBERS LOBBY - HOUSE OF COMMONS CHAMBER, 좌측에 있는 PEERS LOBBY - HOUSE OF LORDS CHAMBER - ROYAL GALLERY 정도만 볼 수 있다. 1920년대 웨스트민스터 도면(흑백 도면)을 보면 6호라는 명칭은 좌측 상단에 하나밖에 없다. 이를 지금 도면(천연색도면)에서 보면 CLERK OF THE PARLIAMENTS. 1920년대 당시 나누어져 있던 방들이 지금은 하나의 큰 방으로 바뀌었다. 당시 6호실이라고 표기된 이곳이 맞다면 지금의 CLERK OF THE PARLIAMENTS가 우리가 찾고 있는 한국친우회 결성장소, 독립유적지인 것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추측일뿐. 밝혀진 것은 아니다. 정확한 장소를 찾아 현재의 모습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직접 방문해 문의했으나 일반인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답만 들었다. 현재 바로 옆 이 LEADER AND CHIP OFFICE로 매우 중요한 인사들이 있는 곳이다. 당연히 사진 촬영은 물론 일반인은 접근조차 할 수 없다. 영국 국회의사당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락된 구역에도 대부분 실내 촬영을 할 수 없다. 사진 촬영을 했다고 의심되는 방문객이 있으면 안전요원이 다가와 핸드폰을 일일이 검사할 정도다. 한인타운이 있는 뉴몰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한 달이 넘도록 답이 없다. 지역민에게 매우 협조적인 의원인데 그도 도울 방법이 없어 고민하는 걸로 판단된다.

황기환

(생존 기간 미상-19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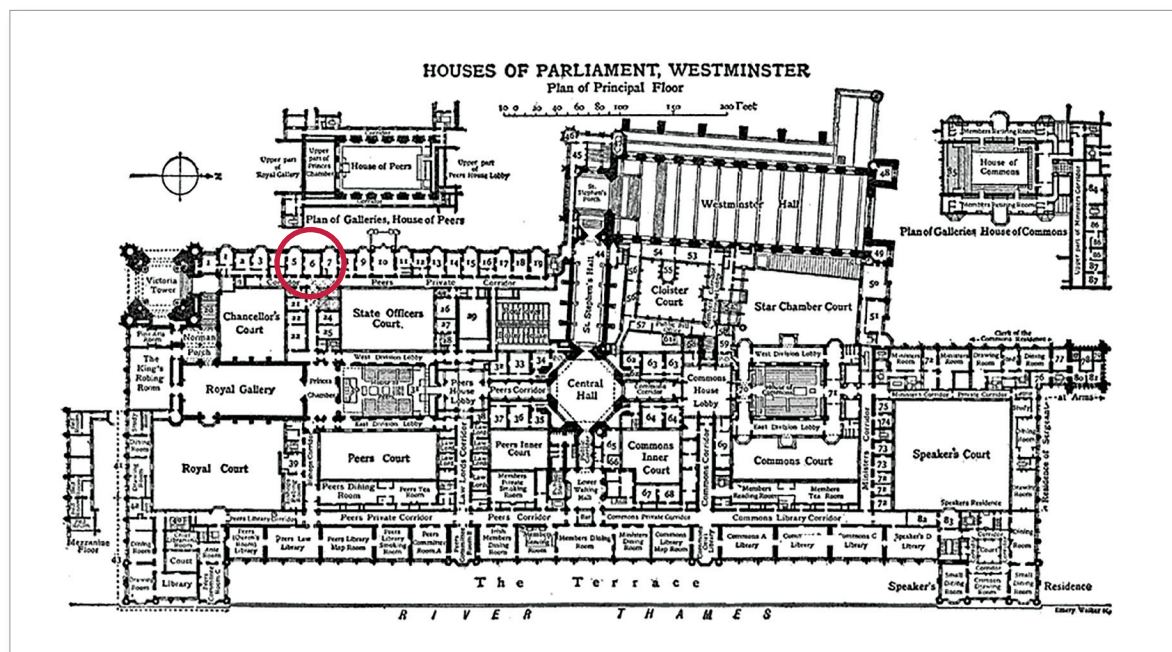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유친 초이'에 비유해 '유럽의 유친 초이'라 불리는 독립운동가.

평안남도 순천 출생. 미국 유학 중 세계 제1차대전에 참전, 유럽 전선에서 중상자 구호, 1919년 프랑스로 귀환. 임시정부 파리 위원부 서기장 역임, 파리 주재 한국선전단 선전국장. 강연회 개최와 불어 잡지 창간 등으로 한국의 독립을 세계 여러 나라에 호소. 베트남 독립투사 호찌민과 교류하며 국제사회에 한국 독립 당위성을 알림. 1차대전 후 러시아에서 영국으로 간 한인 노동자의 일본 송환을 막고 파리에서 정착하게 도움. 영국에서 한국친우회 결성.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파리위원 겸 런던주차위원으로 외교활동, 1921년 워싱턴회의 때 미국으로 건너가 이승만·서재필 보좌 외교활동, 1923년 4월 마흔 살쯤 나이에 뉴욕에서 사망. 1995년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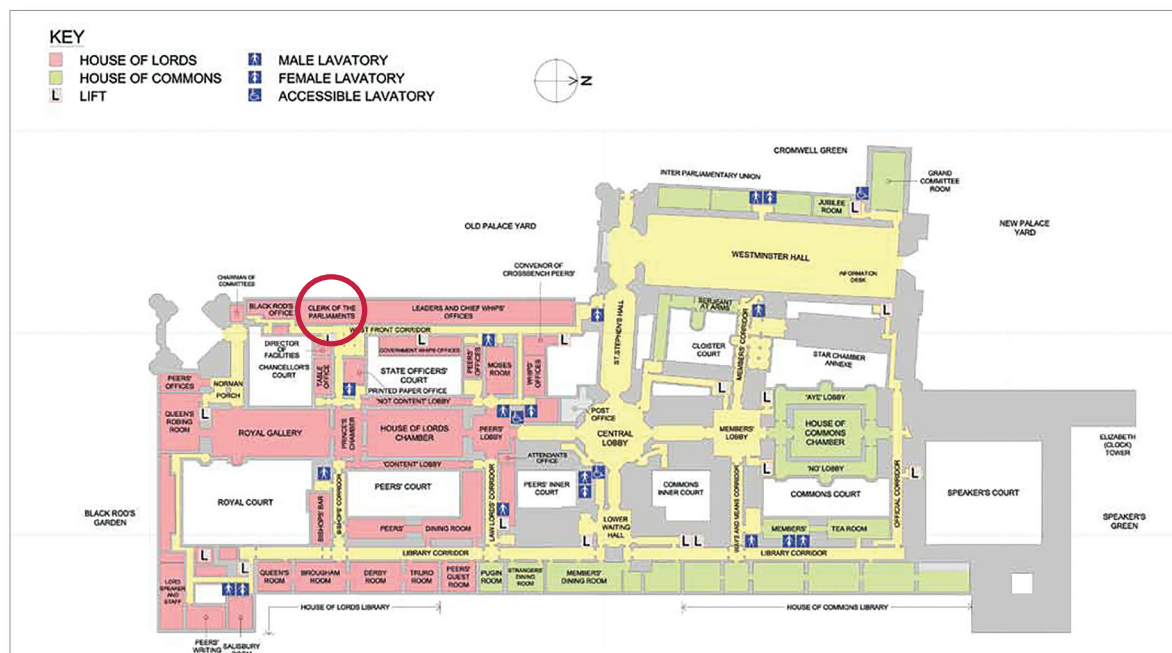
우리는 영국 국회의사당의 화려한 외관과 빅벤의 위용에 곧잘 감탄한다. 그런데 그곳이 94년 전 푸른 눈의 친한 인사들이 모여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역만리 극동의 한 나라인 대한민국의 독립을 지지하는 '대한친우회'를 결성한 곳이라는 걸 알게 되면 의미가 더해지지 않을까. 웨스트민스터가 영국에 있는 우리의 해외 독립운동 유적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가오는 의미가 더 깊어지지 않을까. 마침 광복 74주년을 맞았다. 올해는 임시정부 100주년이야. 내년이면 영국의 한국친우회 100주년이다.

아, 그분들의 후손으로 살다보니해마다 선열들께 빚만 더 늘고 있다.

한인헤럴드 김중백
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 자료1 1920년 당시 영국 국회의사당 도면. 좌측 상단 6호실



▲ 자료2 현재 영국 국회의사당 도면. 좌측 상단 CLERK OF THE PARLIAMENTS